

2017 동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전라남도 해남군
- 슈빌리지역아동센터



2018. 1

국내 이화봉사단으로만 두 번째 봉사였던 저는 저번 여름보다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이번 교육봉사의 가장 어려운 점은 아이들의 흥미, 관심, 수준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번 교육 봉사는 중학교 1학년~3학년으로 비교적 나이대가 비슷하여 비슷한 난이도의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됐지만, 주빌리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나이대가 최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매우 폭넓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맡은 "시장놀이"는 아이들끼리 다들 우려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회의 때부터 시장놀이를 변형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걸 어떻게 교육적이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학의 기본원리와 한국사, 두 마리의 토끼를 재미있는 놀이로 전달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구상했고 함께 봉사한 친구들이 잘 도와준 덕분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쳤을 때 어떤 때보다 뿌듯함이 컸습니다.

이번 봉사를 하는 내내 제가 감사를 얻기 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를 위해 아침, 저녁까지 챙겨주신 지역아동센터 요리 선생님께 감사했고, 저희를 믿고 아이들을 맡겨주셨지만 간혹 불화나 에로사항이 생기면 언제든지 중재해주셨던 담당 선생님, 교구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위해 픽업 차량을 아낌없이 제공해주셨던 센터장님, 그리고 함께 봉사한 친구들, 모자란 선생님을 잘 따라주었던 아이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번 봉사는 제게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첫 날 주빌리 아동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당황함이 앞섰습니다. 중학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갔지만 실제로 보니 우리가 기획한 5일 동안의 프로그램을 잘 따라와 줄까라는 의문이 더욱더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은 이화봉사단을 많이 경험해봐서 그런지 저희 이화봉사단을 잘 따라올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을 참여하도록 하는 등 저희가 지도하기 힘든 상황에서 많은 도움을 주어 이 아이들 덕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쉬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러간 상황에 아이들이 그렇게 도움을 주니 큰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아이들과 5일 동안 친해질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저희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고 같이 게임을 하자고 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많이 친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화봉사단을 만나면서 많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는데도 저희에게 마음의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와 주어서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그 아이들 때문에 5일이라는 시간이 그저 힘든 것이 아니라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생활을 하면서 만나기 힘든 다른 학과 사람들과의 만남이 정말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5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많이 친해지고 하루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바로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이 웃으면서 친해진 것 같아 이화봉사단에 참가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래

주빌리의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했고 낯선 우리를 약간은 경계하기도 하는 아이들을 보며 앞으로 5일 동안 어떻게 지내야 할 지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틀째부터 서서히 적응이 되어갔고 아이들도 저도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된 후부터는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금방 금방 시간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걱정과 달리 순수하고 정이 많았고 낯설어하는 저에게 오히려 먼저 말을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참여해주었고 미흡했던 점이 있어도 기다려주고 잘 따라준 덕분에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며 챙겨주기도 하고 친근하게 장난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고 아이들의 건강한 기운 덕분에 동심으로 돌아간 듯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소 어려운 활동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아이들을 보며 오히려 아이들에게 배워가는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봉사를 하러 가면 주는 것 보다 얻는 게 더 많다는 말을 마음으로 와닿게 된 5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준 주빌리 친구들과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우리 팀원들에게도 모두 고맙고 주빌리에서의 추억들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최*윤

쥬빌리에서의 첫 일정은 생각보다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팀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이들의 연령대가 워낙 다양했고, 그 때문에 활동의 난이도 조절이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들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 힘들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과 봉사자들이 서로에게 적응하고 마음을 열면서 점점 더 즐거운 활동을 만들어갔습니다.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최대한 말을 들어주고 관심사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대감을 키워가다 보니 아이들이 봉사자들에게 호의를 가지게 되었고, 가끔 실수로 인한 미숙한 진행에도 서로 맞춰나가며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이들의 상황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알았더라면 더욱 조심스럽게 그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입니다. 무심코 했던 질문들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첫 봉사였던 만큼 많이 부족했을 텐데 같이 해준 쥬빌리 팀원들에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같은 식구라고 여겨 준 쥬빌리 아이들에게도 고맙습니다.

지*현

주빌리에 도착하여 아이들을 처음 보았을 때 생각보다 연령대가 너무 다양해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게다가 첫 일정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부담감도 컸지만, 다른 봉사단원분들께서 체육활동을 함께 참여하여 협조해주셨고 이에 아이들이 마음을 점점 열기 시작하여 첫 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단원들이 봉사 전 사전에 미리 친해지지 못하고 갔던 터라 단합이나 응집력 등 걱정이 많았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매사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임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편, 아이들을 교육하는 봉사활동이 저에게는 처음이었기에 아이들과의 친밀감 형성뿐만 아니라 통제함에 있어 융통성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빌리 친구들은 마음을 열고나서부터 오히려 저희에게 먼저 다가와 주었고 다소 하기 싫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자원 봉사라고하기에 제가 얻은 것이 너무나도 넘치는 활동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국내봉사를 지원할 때 말씀드린 동기처럼 지금까지 받은 것이 너무도 많아 이제야 베풀기 위해 신청한 활동이지만 배로 받아 죄송한 마음까지 듭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부 아이들의 열악한 가정환경이나 상황에 대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환경이나 부모의 경제력 등은 운에 따른 선천적인 요소일 뿐인데, 너무나 당연하게 누려왔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상처가 있음에도 열심히 생활하고 밝게 성장해 나가는 아이들이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빌리에는 형제/자매들끼리 함께 다니는 경우도 흔하여 첫째 아이들도 저희 기준에 너무 어리고 보호해줘야 할 나이지만 나머지 동생들을 챙기고 통제해 주곤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였고, 저도 막내인지라 느끼지 못했던 가족들의 부담감에 대해 생각해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배운 것이 너무나도 넘치는 활동이었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이화여대와 잊지 못할 추억을 새겨준 봉사단원분들, 아이들, 주빌리 관계자 분들 다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임*원

처음 쥬빌리 친구들을 만났을 때, 예상 외로 아이들끼리의 유대감이 강하게 형성되어있어 그 사이에 저를 비롯한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걱정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쥬빌리 친구들은 금세 마음을 열고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들여주었고, 그에 따라 4박 5일 동안 큰 어려움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 중의 많은 대화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했고, 그러면서 아이들 한명 한명에 대해 깊은 애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활동이 끝날 무렵, 지난 4박 5일을 돌아보니 제가 쥬빌리 친구들에게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보다 훨씬 깊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 어리지만 티내지 않고 진심으로 선생님들을 위하고 배려해주던 친구들을 보며 제 자신에 대해 많이 반성했고, 부끄러워했습니다. 낯선 선생님들을 가족처럼 대해주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쥬빌리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동시에 제가 친구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봉사 기간 동안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도와준 봉사단 팀원들, 그리고 크고 작은 도움을 주신 쥬빌리 센터의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